

Press Release

이베코코리아, 고객 소통 및 지역 사업 활성화 위해 울산 영업소 개소

- 산업단지 및 항만, 동해고속도로에 인접한 지리적, 사업적 요충지에 위치
- 울산과 주변 영남권 고객 점점 강화로 브랜드 인지도 및 시장점유율 제고 기대

[2024년 5월 13일, 광주]

이탈리아 상용차 브랜드 이베코(IVECO)의 한국지사 이베코코리아(지사장 최정식, www.iveco.com/southkorea)가 이달 초 울산 영업소를 신규 오픈했다.

이베코 울산 영업소(울산 남구 산업로 130)는 대한민국 1호 국가산업단지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초입에 위치한다. 근처에 온산국가산업단지와 울산 신항을 비롯해 대규모 물류 및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포항·울산·부산을 잇는 동해고속도로와도 인접해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과 접근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베코코리아는 트랙터와 대형 카고의 수요가 높은 울산 지역에 영업소를 오픈함으로써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새로운 고객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 서비스딜러와 영업소를 같은 지역에서 함께 운영해 울산 지역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 영업소는 이베코 울산 서비스딜러가 있는 수성 1급 종합정비소의 입구에 팝업 스토어 형식으로 자리잡았다. 영업소 내 고객 상담 공간에서는 전문상담원이 이베코의 최신 프로모션과 고객맞춤형 금융프로그램, 커스터마이징 패키지를 포함한 구매상담과 함께, 낮은 총소유비용(TCO)과 최적의 운행조건 유지를 위한 이베코만의 깊이 있는 노하우를 제공한다. 서비스딜러에서 점검과 정비를 받는 동안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고객 대기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이베코코리아는 울산 영업소 오픈을 기념해 5월 한 달간 무상 점검 이벤트를 진행하고, 방문 및 상담 고객에게 기념품도 증정한다.

이베코코리아 최정식 지사장은 “경남과 경북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이자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한 울산은 상용차의 판매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울산 영업소가 영남권 고객 소통을 위한 주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전국 규모의 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이베코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베코코리아는 2024년 5월 기준, 전국 10개 영업지점 및 17개 서비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

이베코(IVECO)

이베코는 Iveco Group N.V.(MI: IVG) 산하 브랜드로, 소/중/대형 상용차량과 오프로드 트럭, 다목적 트럭 등 광범위한 분야의 차량을 설계 및 제조, 판매하고 있다.

이베코는 차량 총중량 기준 ▲3.3~7.2톤급 데일리(Daily), ▲6~19톤급 유로카고(Eurocargo), ▲16톤 이상 대형 세그먼트 내 온로드용 트랙터 S-WAY, ▲16톤 이상 대형 세그먼트 내 오프로드용 덤프 트럭 T-WAY, ▲16톤 이상 대형 세그먼트 내 온로드와 오프로드 운송을 모두 충족하는 X-WAY 등의 제품군을 갖추고 있다.

전 세계 약 21,00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의 7개국에 위치한 생산시설에서 최첨단 기술을 탑재한 차량들을 생산하고 있다. 160개국 이상 4천 200여곳의 영업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이베코 차량이 운행되는 모든 곳에서 기술 지원을 보장한다.

이베코는 고객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풀라인 상용차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포부를 바탕으로 운송 산업의 변화를 주도, 변화의 길을 이끌고 있다.

[자료문의]

이베코코리아

성윤솔 과장 (010-7355-0588 / yunsol.sung@ivecogroup.com)

드밀커뮤니케이션

정이나 차장 (010-6302-7793 / yeena@demillpr.com / iveco@demillpr.com)

홍석준 매니저 (010-5045-3233 / seokjune@demillpr.com / iveco@demillpr.com)